

# “모교 역사 찾기 최우선”

함상옥 간성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간성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총동문회장에 함상옥씨(61세, 사진)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함상옥 간성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은 “지난해 100주년을 맞아 모교에 백년관이 건립 됐어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1년이 지난 9일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경에 완공하게 됐다”며 “해방과 한국전쟁 등으로 소실된 모교의 역사적 발자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함 회장은 또 “모교의 은사와 동문들이 가지고 있는 모교 시절 사진과 교과서 등 자료들을 확보해 백년관에 전시할 계획”이라며 “간성초교의 100년이라는 역사를 잃지 않도록 총동문회와 모교 등 지역발전과 헌신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경주 하겠다”고 했다.

함 회장은 간성초교, 고성중·고,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고성군 선거관리위원, 고성군 변영회장, 고성군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곡물협회 강원도지회장, 고성군향토장학회 감사, 고성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족은 부인 황명옥씨(57세)와 1남1녀. 박승근 기자

## 고성교육청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 연수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제도 및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1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학교주변을 유지함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풍토로 조성하지는 취지로 열렸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정화위원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해시설로 인해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저해를 받는 일을 최대한 방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 학부모특강 자녀 진로교육 도움

### 2011년 학부모교육 특강... 교원능력개발평가·입학사정관제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 학부모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저녁 7시 고성문화의 집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 교사 및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학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고성교육지원청 김원근 장학사가 ‘교원능력개발평가’란 주제로, 속초여고 안병섭 수석교사가 ‘입학사정관제 전문가 되기’란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2011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 과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 또는 평가를 통해 만족도 조사가 이뤄진다.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전



지난 24일 열린 고성교육지원청 2011년 학부모특강에서 속초여고 안병섭 수석교사가 ‘입학사정관제 전문가 되기’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국 119개교이며, 3만8,083명을 선발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분석하고 면접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녁시간에 행사를 진행했다”며 “특강을 통해 조금이나마 자녀 진로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매주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독서를

### 간성·토성도서관 ... 9월3~24일까지 ‘독서의 달’ 행사

고성군립도서관은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지역주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를 생활화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책과 함께 하는 독서의 달 행사를 실시한다.

독서의 달 행사를 위해 간성도서관과 토성도서관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 각각 초등학교 45명, 가족 1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간성도서관 종합자료실과 토성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 방

문접수를 받는다.

간성도서관과 토성도서관의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책퍼즐 만들기, 독서신문 만들기, 스토리북 만들기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가방 만들기가 있다. 수강료 및 재료비는 무료다.

간성도서관과 토성도서관에서는 또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주제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고성지역 영아들에게 그림책을 선물하는 북스타트를 운영해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성군립도서관 관계자는 “책과 함께하는 9월이 되기 위해 군립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뜻 깊은 가을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간성도서관 680-3560, 토성도서관 632-6002〉 최광호 기자

# 9월 비 많고, 11월 맑고 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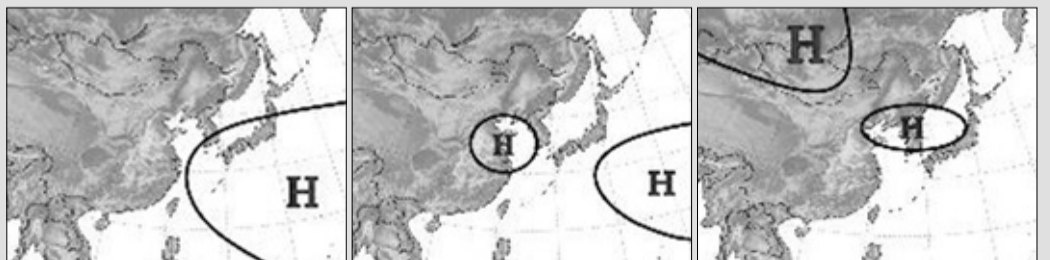
### 속초기상대 가을철 기상전망

올 가을 우리나라의 날씨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11월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속초기상대가 발표한 가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9월 상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물러나겠고, 중순 이후에

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겠으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순에는 대기불안정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순 이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다.

10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일교차가 커지며 맑은 날이 많겠으며, 산간 지방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월별 기압계 모식도. 왼쪽부터 9월, 10월, 11월.

어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

속초기상대는 11월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으나 강수량은 영동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고, 영서는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광호 기자